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
문 의	나영정(SOGI법정책연구회) sogilp.ks@gmail.com)
제 목	[취재요청] 성소수자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정책을 요구한다! 성소수자-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면담 기자회견
발 송 일	2015년 10월 7일 (수)
페 이 지	기자회견 계획 및 성명서 포함 총 7페이지
별 첨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행사 개요 (10/10 대한문)

1.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는 10월 7일(수) 오전 9시 20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소수자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정책을 요구한다! 성소수자-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면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이에 취재 요청을 드립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에 공문을 보내(2015.8.4.)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지원 조항이 조례의 모법(母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 오히려 성주류화 정책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초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에 앞서 진행됩니다.
3. 여성가족부 면담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조숙현 변호사,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나영정 활동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김미순 공동대표, 장애여성 공감 배복주 대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가 참석하여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을 면담합니다. 성소수자-여성단체는 면담의 결과로 여성가족부가 10월 11일까지 변화된 입장을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4. 아래 기자회견 계획 및 성명서를 붙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성소수자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정책을 요구한다!
성소수자-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면담 기자회견

일시: 2015년 10월 7일 오전 9:20-9:50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순서>

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잇을 활동가

발언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조숙현 변호사

발언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나영정 활동가

발언3: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성명서 낭독

[성명] 성소수자 배제하지 않는 성평등정책을 요구한다!

성소수자-여성단체, 여성가족부 면담 기자회견

오늘 성소수자단체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에 항의하고, 입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면담을 진행한다.

이미 지난 8월 12일에 우리는 ‘성평등’에서 성소수자 배제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는 11개 여성단체, 13개 성소수자 인권단체, 6개 대학 성소수자/여성모임, 21개 인권단체, 4개의 정당기구, 4개의 종교단체, 39명의 성소수자/성소수자모임/활동가, 56명의 여성학연구자/페미니스트/여성단체 회원 및 활동가, 43명의 인권·시민활동가/상담가, 5명의 인권행정가, 13명의 정당인, 141명의 개인들이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성명에 연명하였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오늘 “여성가족부의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1033명의 목소리를 다시한번 전달한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에 다시 묻는다. 왜 성평등을 실현하는 성주류화정책에서,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만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성별에 기반한 차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이다. 한국의 성주류화 정책의 근간인 북경여성행동강령32조는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 또는 장애와 같은 요인 때문에, 그들의 역량강화나 지위 향상에 대한 다양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여성과 여아에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을 보장하는 노력을 강화한다.”고 천명하였다. UN Women은 보고서 <북경여성행동강령의 이행 경향>(2015)에서 장애, 토착민 여성, 이주 여성, LGBT 등 주변화된 여성을 고려한 성주류화 정책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가족부가 실질적인 성주류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 모자란 상황에서 여성정책기본법에서 성소수자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말의 정당성도 가지기 어렵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성주류화,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차별과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의 성평등기본조례 개정과정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삭제하라는 여성가족부의 요구는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압박하는 반성소수자단체 및 보수개신교회와 단체들은 성소수자의 인권만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이들의 눈치를 보며 나아가 편승하여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는 원인과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여성가족부가 대전시에 보낸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입니다”는 입장을 철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가 올바르게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성주류화 정책을 실행해나갈 의지가 있음을 밝히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누구의 성차별과 불평등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국민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을 확인시키라.

2015년 10월 7일

성평등 바로잡기 대응 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별첨**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
행사 개요**

1. 행사 개요

- 행사명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 일시 10월 10일 (토) 저녁6시~8시30분
- 장소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청역 1번 출구)
- 공동주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외 20개 단체
- 주관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 지원 인권재단사람_365기금
- 규모 200~300명(예상)
- 예산 총 500만원
- 웹사이트 www.facebook.com/lbtwomen
- 프로그램 여성성소수자 삶의 이야기 드러내기, 여성성소수자 선언, 공연 등

2. 행사 취지

■ 왜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인가?

지난 8월, 여성가족부는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성소수자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9월 18일,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삭제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사업, 조례 조항 등이 항시 난항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제정된 성소수자 인권규범이 사라진 것은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남녀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양성 모두의 부처’가 되겠다고 말하면서도, 성소수자들은 여기에 해당 되지 않는 범주에 있다고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어찌되었든 성소수자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보수화된 성평등 행정에 분노하면서, 여성성소수자들이 모여 우리의 삶으로 성평등의 의미를 다시 그려보는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Ain’ t I a Woman?” 은 1851년 미국 오하이오에서 열린 여성권리 집회에서 노예해방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인 흑인 여성 소저너 트루스 (Sojourner Truth)가 했던 연설입니다. 인간에 대한 권리, 여성에 대한 권리를 말하

는 가운데에서도 노예일 뿐인 흑인 여성에 대한 권리는 바닥에 있다는 현실을 짚고
 굽게 외친 연설입니다. 이는 ‘당신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인권이 무엇이나’ 는 비
 판이었습니. 당시에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의 발언을 막으려고 했고, 연설 중에도
 남성들로부터 야유가 쏟아져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연설문은 같은 여성일지라도
 중산층 백인 여성 노예인 흑인 여성의 현실이 다르고, 그냥 ‘여성’ 이라고만 해서
 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보여줄 수는 없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역사적 문헌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저기 저 남성이 말하는군요. 여성은 탈것으로 모셔 드려야 하고, 도량은 안아
 서 건너드려야 하고, 어디에서나 최고 좋은 자리를 드려야 한다고. 아무도 내게
 는 그런 적 없어요. 나는 탈것으로 모셔진 적도, 진흙구덩이를 지나도록 도움을
 받은 적도, 무슨 좋은 자리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성이 아닌가
 요? 날 봐요! 내 팔을 보라구요! 나는 땅을 갈고, 곡식을 심고, 수확을 해왔어요.
 그리고 어떤 남성도 날 앞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나는 남
 성만큼 일할 수 있었고, 먹을 게 있을 때 남성만큼 먹을 수 있었어요. 남성 만큼
 이나 채찍질을 견뎌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이 아닌가요? 난 5명의 아이
 를 낳았고, 그 아이들 대부분 노예로 팔리는 걸 지켜봤어요. 내가 어미의 슬픔으
 로 울부짖을 때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
 는 여성이 아닌가요? (연설 중 일부)

3. 쉼기대회 세부 기획

- SNS캠페인 : 페이스북(www.facebook.com/lbtwomen) 등 #나는여성이다니까
 현재 기획단 활동가들의 이야기 연재 중
- 기고, 언론 : 행사 보도자료 배포 예정, <성평등바로잡기대응회의>에서 언론 기
 고 분담(사후 한겨레/경향 등 기획기사 발행 추진 중)
- 본 행사 프로그램
 사회 : 정현희(기획단, SOGI법정책연구회)
 발언 : 여성가족부 면담 대표단 발언(미정)

여성성소수자 6인의 Coming out

: 약10분동안 사진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순서

이름	프로필
라라	20대 초반,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악 저지 운동본부 활동가
한희	30대 초반 트랜스젠더 여성, SOGI법정책연구회/트랜스젠더인권단체설립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
쥬리	20대 초반 레즈비언,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명우	50대 후반 레즈비언, 8-90년대 레즈비언 bar 레스보스 운영
이경	30대 후반 레즈비언, 전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민주노총 상근

공 연

- 난세2 :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및 회원, 노래 공연
- 게이코러스 ‘지보이스’ : 합창
- 생활밀착형 비혼여성코러스 ‘아는언니들’ : 합창
- 우주최강댄싱듀오 ‘28’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춤 공연
- 권이은정 : 아프리카칸 댄스

영 상

- 현안 관련 카드뉴스
- 지지메시지

여성성소수자 선언문 낭독